

정치가 지역민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도서관

도서관 민주주의

현진권 지음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같이 간다.” 전 미국 국무부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다. 도대체 도서관과 정치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봄에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정치 시즌일 정도로 정치가 과잉돼 있다. 늘 선거가 있었고, 정치는 술자리나 밥상 위에 오르는 흔한 소재였다.

앞서 언급한 힐러리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말이 있다. “도서관을 모르면 정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것이다.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이 발간한 ‘도서관 민주주의’는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의 시각으로 도서관 진화를 분석한 책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세권’은 낯선 용어가 아니다. 역세권, 순세권처럼 좋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를 일컫는 말이다. 사실 도서관은 삶의 핵심 문화공간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도서관을 빌리는 장소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체험과 교육, 교류와 만남, 융합과 확장 등 도서관의 기능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19년 국회도서관장에 취임한 이후 업무상 전국 도서관을 다녔다. 당시 마음을 사로잡은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이었다.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저자에게 ‘도서관 민주주의’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실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단체장에 게 도서관은 ‘핵심 지역사업’ 가운데 하나다. ‘왜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없느냐’는 불만을 지나쳤다가는 낭패



수원 광고푸른숲 도서관에는 숲속에 개별 오두막 열람실이 있다.

(광고푸른숲 도서관 제공)

를 당하기 십상이다. 도서관이 필수 경쟁 아이템인 것은 그러한 측면 때문이다.

저자는 좋은 도서관에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다고 본다. ‘철학’과 ‘개성’이 그것.

남양주시에는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이 있다. 이석영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흑자는 역사 중심 도서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을 위한 음악과 뉴미디어를 특화한 공공도서관이다. 남양주시 화도읍은 청소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다. 모든 시설이 청소년에 특화돼 있다.

“규율과 질서에 익숙한 공간이 아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1층 로비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놓여 있고, 언제든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단형 좌석은 자유로운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원의 광고푸른숲 도서관은 자연 속에 있는 도서관

개념이다. “자연 치유와 웰빙에 특화된” 공간이다. 이곳은 주거와 자연 공원, 도서관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하나의 맥으로 연계했다. 숲에 개별 독서 오두막을 만들어 자연에서 도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운동주를 기념하는 도서관도 있다. ‘서울시 은평구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 그것. 운동주가 연세대 출신이며, 연세대는 은평구에 있다.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도서관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는 도서관을 사용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모든 건 생각의 경쟁이다. 도서관 경쟁은 생각의 경쟁”이라며 “지역마다 특화된 새로운 모습의 도서관이 탄생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가 지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한다. <살림·1만4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어스테크, 지구가 허락할 때까지=책은 지구를 망치는 하이테크(High Tech)에서 지구를 살리는 딥테크(Deep Tech)로 전환한 스타트업 CEO 4명의 도전을 다룬다. 저자는 이병한 원광대학교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기존의 환경운동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액티비스트’인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디안·1만6000원>



▲인생의 맛 모모푸쿠=뉴욕을 사로잡은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이 들려주는 성공하는 문화와 행운에 대한 이야기다. 2004년 일본식 라멘을 재해석한 ‘모모푸쿠 누들 바’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짬 바’, ‘코’ 등 음식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푸른숲·1만8000원>



▲멍멍이 심리사전=구멍을 보면 얼굴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 늑기 전에 방글 방글 도는 이유는? 일본 동물과학연구소 소장인 이마이즈미 다다카이가 검증된 연구 자료와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개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느껴봤을 공감증을 해결해 준다. 만화작가 미치유키 아오이의 그림이 더해져 읽는 즐거움도 배가된다. <문학사상·1만4500원>

▲능력주의와 페미니즘=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 재직중인 파트리크 자흐베는 ‘사회적 계층 상승과 몰락’과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형’이라는 주제를 한데 엮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이슈를 탐구한다. 빈곤의 대물림, 세대 간 지위 안정화 등의 이슈를 다각도로 해부함으로써 모순된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다. <사월의책·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방귀의 1초 인생=나이, 성별, 국적 구분 없이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존재, 방귀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이다. 필란드 작가 말린 클링엔베리는 알프스 산을 오르는 모험가 방귀,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달리기 선수 방귀, 방귀 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 음악가 방귀 등 각각 색깔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귀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를 전한다. <침비교육·1만3000원>

다. 발 닿는 대로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 1년을 함께한다. 답답이는 아무지도 똑부러진 아이가 되어 돌아올까? 작가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아기꽃·1만4000원>

▲답답이와 도깨비=하수정 작가가 구비전승된 ‘도깨비가 준 선물’을 그림책으로 구현했다. 제법 컸는데도 양팔쩍도 못맞춰 짝짝이로 신는 ‘답답이’가 부모에게 떠밀려 밭짓을 메고 세상 공부하러 떠난

▲오늘은 용돈 받는 날=연유진 작가가 용돈을 처음 받는 어린이들에게 경제 교육의 기초를 형성할 돈 관리법을 생활 동화의 형식으로 전한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아이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과 감정을 주인공 현우의 시선에서 이야기한다. 뒷부분에는 돈의 의미와 전자화폐 등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경제의 기초지식을 담았다. <풀빛·1만3000원>

가족보다 가까운 소울 메이트의 7년 우정과 애도 연대기

먼길로 돌아 갈까?

게일 콜드웰 지음·이승민 옮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 그러다 친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함께였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은 소울메이트가 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기쁨과 슬픔, 위로를 주고받았던 어떤 두 사람의 우정과 애도의 연대기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랑한 운전자’, ‘육구들의 작가 캐럴라인 냅과 문학평론가이자 풀리처상 수상자인 게일 콜드웰.

책은 ‘남편’인 게일 콜드웰이 집필했다. 책 제목 ‘먼길로 돌아갈까?’는 하루가 이대로 끝이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면 누군가가 말하곤 했던 ‘집까지 먼길로 돌아갈까?’에서 가져왔다. 그 말속엔 ‘좀 슬렁슬렁 가보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

도록, 지금이 조금 더 길어져도’라는 뜻이 담겨 있다.

책은 발간 당시 ‘타임’ 선정 ‘올해의 논픽션’, ‘O: 오프라 매거진’ 선정 ‘올해의 책’ 등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소개 후 절판됐다 이번에 한국어판 저자 서문과 번역을 다듬어 새롭게 출간됐다.

책에서는 “따로 있을 때는 겁에 질린 숲꾼이자 야심찬 작가이며 애절한”이던 두 사람이 가족보다, 때로는 연인보다 가까운 관계를 맺고 특별한 마음을 나누었던 7년의 기억과 예기치 못한 상실과 그 이후의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낸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진다.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은 ‘개’였다. 문인들 모임에서의 여색한 첫 인사가 있고 몇 년 뒤, 우연히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만난 두 사람은 호감을 갖게 되고 이후 게일의 개 ‘클레멘타인’과 캐럴라인의 개 ‘루실’까지 넷이 하는 산책이 그들의 일과로 자리잡았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반려견과 단순한 언어로 소통하며 온종일 침묵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이후 숲속과 들밭, 해변에서 끝없이 대화를 하며 걷고 또 걸었고, 강으로 나가

노를 저으며 로잉(Rowing)을 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주는 파스함과 홀로 남겨지는 자유로움” 모두를 누리며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함께 지낸 날들은 지난날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으며, 자신을 지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저자는 캐럴라인이 비소세포성 선암 4기 진단을 받은 지 7주만인 2002년 6월 삶을 마감하고, 그로부터 6년 뒤 ‘클레멘타인’도 세상을 뜨자 ‘두 죽음’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슬픔속으로 곧다박질치지 말고, 서서히 나의 남은 나를 규정하리라 지레짐작하지도 말고 그저 그 슬픔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다.

황지선 작가는 “좋은 친구를 가져본 사람, 꿈꾸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는 추천사를 썼다. <문학동네·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坪)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8坪)
DAP-0420AWJG

59 공기청정기 (16坪)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